

임실군, 사계절 축제 도시 ‘우뚝’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력

옥정호 벚꽃축제·임실N치즈축제·산타축제 등 축제 기간 관광객 97만여명 방문

임실군이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오는 ‘사계절 축제 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봄부터 겨울까지 주요 관광지에서 개최된 축제 기간에만 임실을 찾은 관광객은 97만여명으로 100만명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지난해 봄 옥정호 벚꽃축제, 오수외견문화제와 함께하는 임실N페스티벌, 여름에는 아쿠아페스티벌, 가을에는 임실N치즈축제, 겨울에는 산타축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지난해 3월 30일과 31일 양일간에 걸쳐 처음 개최된 옥정호 출렁다리와 만나는 ‘2024 임실 옥정호 벚꽃축제’는 2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봄에 만나는 봄어섬, 블라썸(blossom)’이라는 주제로 옥정호 출렁다리 앞 특설행사장에서 열린 2024 임실 옥정호 벚꽃축제는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반려동물 문화축제인 ‘제39회 외견문화제’와 함께하는 2024 임실N페스티벌’은 비가 내린 곳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한 반려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5만여명의 역대 가장 많은 관광객을 기록했다.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치러진 임실군의 대표적 여름 축제인 ‘아쿠아페스티벌’은 총 9천4백여명의 유료 입장객과 함께 매출액은 1억5천여만원을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임실군이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오는 ‘사계절 축제 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벚꽃축제 사진

지난해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10주년 임실N치즈축제에는 축제 기간에만 전국 각지에서 58만여명이 찾으며, 전년에 세운 최다 관광객 기록을 또 갈아치우며 명불허전 화제성을 재 입증했다.

특히 비슷한 기간 10여 개에 달하는 지역축제가 열린 가운데 이뤄낸 성과로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대형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축제가 열리는 나흘간 치즈와 유제품, 농특산물 등 매출도 전년 16억3000만원보다 무려 8억2000만원이 많은 24억5000만원으로 집계, 67%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적인 겨울철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임실산타축제는 축제가 열리는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전국적으로 31만85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최다 기록이었던 11만명보다 3배 증가한 수치다. 매출액도 전기록을 세웠다. 이 기간 임실N치즈와 대형음식점, 입점부

스, 푸드트럭, 썰매장 등의 총매출액은 8억3,300만원으로 전년 4억4500만원보다 87%나 증가했다.

군은 이들 축제 기간에만 100만명이 달하는 관광객이 찾은 가운데 축제 이외에도 옥정호와 임실치즈테마극, 오수외견관광지, 사선대, 성수산 등 주요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은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군은 2025년은 임실 방문의 해인 만큼 더욱 공격적인 관광 홍보와 더 알찬 축제, 관광지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목표했던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각오다.

심 민 군수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에 주셔서 사계절 축제의 도시 임실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게 됐다”며 “올해는 임실 방문의 해로서 전국 각지에서 더 많은 관광객이 임실군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와 축제 등을 더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농업인 소득 향상·경쟁력 강화

남원시, 농업 기술 보급 사업 45개 사업에 45억원 투입

남원시가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5년 농업기술보급사업 45개 사업에 4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대상은 남원시 관내 농업인, 생산자 조직 및 단체 등으로, 공고일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원부 상 경영주 명인자 등이다. 신청 및 문의는 해당 읍·면 농민상담소,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능하다.

주요 사업은 △인력육성 분야 청년 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농식품산업 분야 농식품 부산물 활용 상품

화 기술시범 △농업기계 분야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원푸드 분야 특산자원 융복합 상품화 기반조성 스마트농업 분야 스마트팜 확대 보급사업 △식량작물 분야 질소시비량 경감을 통한 고품질 벼 안정생산 △과화영농 분야 실증연구 확대 및 실화연구 시범사업 △과수특작 분야 최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조성 등 45개 사업이다.

사업은 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집행 요령 등 사전교육을 추진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서 △스마트농업 △원푸드 △농식품 산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최신 기술과 정보를 접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해져 농업경쟁력이 강화가 기대된다.

김연주 기술센터 소장은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지역 농업 발전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지난해 49개 대회 개최... 52억원 경제효과 창출

순창군이 2024년 한 해 동안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52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며 스포츠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했다.

지난해 순창군은 국제대회 3개, 전국대회 38개, 도 대회 8개 등 총 49개의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여기에 전지훈련 50개 팀까지 더해져 연인원 13만 1,827명이 순창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군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소년 대회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2023년 22개 대회에서 2024년 25개 대회로 확대했다. 이는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군은 스포츠 국제화 전략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필리핀, 동티모르, 대만 등 해외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순창형 스포츠테니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2024 지방외교 우수사례’와 ‘2024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각각 우수상과 외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도비 확보액이 전년 대비 5천만 원 증가한 4억 6천만원으로 늘어나



군 재정 부담을 줄이며 질 높은 스포츠 마케팅을 실현했으며, 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유치로 얻은 직접 경제효과 52억원에 더해 강천산 군립공원, 힐링스과 등 지역 관광지와 연계로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도 창출했다.

아울러, 군은 올해 연초부터 실내다목적구장과 팔덕다용도경기장을 활용한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소년 대회를 중점적으로 유치해 스포츠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군이 스포츠산업도시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강천산과 힐링스과 등 순창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순창을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설 명절맞이 순창사랑상품권 확대·운영

순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와 적립 한도를 1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위촉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설 명절 대목 기간 동안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적립 한도도 기존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지난 12월 군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지류 상품권(1만 원권)은 이미 판매가 중단돼 더 이상 구매할 수 없으며, 현재는 모바일·카드 상품권만

구입 가능하다.

모바일·카드 상품권은 지역상품권(CHAK)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운로드와 회원가입 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카드 상품권의 할인 방식이 기존의 선할인 방식에서 후개시백 방식으로 변경됐다. 후개시백 방식은 상품권 구입 시 정액이 출금되지만, 상품권 사용 시마다 사용 금액의 10%가 적립된다.

적립된 캐시백은 이후 상품권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가계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상수도 요금 인상 한시적 유예

남원시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5년부터 5년간 추진하기로 하였던 상수도 요금 인상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2025년도 상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고, 2026년도 상수도 요금은

2024년도 요율을 적용하기로 전격 결정하였으며, 유예기간은 2026년도 1월 고지분까지로, 시는 이번 요금 인상 유예와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감면 제도로는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누수 감면 △취약계층 지원 △로범·착한 가격 업소 지원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임실군, 농촌지도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임실군이 2025년 농업 신기술 보급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지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2025년도 농촌지도 시범사업은 총 41개의 사업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을 포함한 11개 사업과 기술보급과 소관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포함한 30개 사업이 있으며, 총 24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24일까지이고, 신청 자격은 임실군 관내 거주 농업인이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역 읍·면 농업인 상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각 사업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사업 신청 후에는 사업별 평가 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임실군 농업산하협동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조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업별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반납 시 상품권 지원

순창군이 교통사고 예방과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를 대상으로 20만원 상당의 순창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기준 1955년생까지의 70세 이상 군민으로, 운전면허증(원통기 포함)을 소지한 사람이다.

군은 올해 60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

운전면허 반납은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20만원 상당의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카드형이나 모바일 중 선택이 가능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향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